

전북 우수제품 대형 유통망 진출 지원

전북중기청, 중기·소상공인 대상 내달 14일까지 입점 희망업체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우수제품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자체 시행하는 '대형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평물, 홈쇼핑과 같은 대형유통망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해 지역기업과의 교류가 적어, 유통망을 통한 지역제품의 홍보와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중기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대형 유통망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 후, 전문교육과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지역 우수제품을 대형 유통망에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유통망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전북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대형 유통망 MD와의 1:1 입점상담, 대형마트 내 임시매장 개설을 통한 사전 소비자 반응 테스트 등을 거쳐 실제 입점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중기청은 사전 준비없이 입점 후 판매부진 등에 따른 조기 퇴점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입점을 위한 전문교육과 상품디자인, 판매가격 협상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다수의 유통망에 순차적 입점을 통한 확고한 매출증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실입점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임직원 급여 1% 포함

전은 지역사회봉사단

전주시에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직원 급여 1%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서한국 수석부행장, 임재원 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 및 노동조합 간부 전원,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직원 급여 1%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자 전 임직원 급여의 1%(인 약 1,800만원)을 포함한 특별성금 4,000만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특별성금은 향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용될 예정이다.

'환율 변동 걱정없이 농식품 수출하세요'

aT, 중소 수출업체 대상 환변동보험 적극 지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농식품 수출여건 악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환변동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농축산식품 수출업체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보험으로, aT는 올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환율시장에서

의 변동성 심화로 자칫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변동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상품은 △일일선물환 △부분보장 옵션형 △완전보장 옵션형으로 구분되며, 중소·중견 농축산식품 수출업체는 연간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보험료의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생산 농가와 농식품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여러 수출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환변동보험을 통해 수출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http://global.at.or.kr>) 내 사업신청(수출지원사업)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의 각 지역 영업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지역 독거노인 돌봄대상자 가구 주거환경 개선

전북농협, 무주 적상면 찾아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황석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농촌현장지원단은 24일 무주군 적상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돌봄대상자 2가구를 방문해 세면대 설치, 전등·좌변기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화장지, 세탁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농협은 주택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 농업인 행복콜센터로 상담·접수하면, 현장지원단이 실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이날 도움을 받은 이모(88) 어르신은 "전등이 오래돼 화재위험도 있고 어두워서 불편했는데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이렇게 지원을 받아 너무 고맙다"고 감사에 마음을 전했다. 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은 "복지사 각지에 있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박성일 본부장은 "지역의 돌봄대상자를 지원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노후 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내달 19일까지 불법소각 기동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이 불법 산발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4월 19일까지 매 주말 특별기동단속반(26개조 78명)이 관내(전라도, 광주광역시, 경남 일부에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 대상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이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해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남원=윤희기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해 국민 고통 분담 동참

LX공사 임원진, 코로나 극복 4개월간 급여 30%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사진)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이 4월간 급여의 30%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부결정은 대통령과 장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급여 반납을 결정한 것에 동참하지는 차원으로, 임원진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장 및 부설기관장도 급여의 10%를 기부할 예정이다. 최창학 사장은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지원이 확산되고 있는데 LX도 함께하자"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반납된 연봉은 코로나19 돌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LX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해 전북지역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선별진료 의료기관에 전달했으며, 화해농가 살리기 돕기 운동과 함께 전국 지역본부와 지사를 대상으로 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도 동참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농업기술에 대한 모든 것

농진청, 이달의 신간 5권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농촌주민을 위한 마을 가꾸기 안내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 마을 가꾸기' 등 신간 5권을 발간했다.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우리 마을 가꾸기'는 농촌마을 가꾸기를 단계별로 살펴보는 '기초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농촌경관·생활환경 분야 활동을 소개하는 '실천편',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경관개선 자료를 수록한 '사례편'으로 구성돼 있다. 마을주민 누구나 마을 가꾸기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을가꾸기 단계별 활동 과정을 삽화로 표현해 수록했다. 또한 안내서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이 직접 마을 가꾸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을경관자원 조사표와 '경관관리 활동 달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책자는 마을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수제맥주 산업현장을 가다'라는 책자는 국내 지역특화 수제 맥주산업을 활성화하고 맥아의 국산화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국내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모아 전략보고서다. 이 책은 맥주 주원료인 맥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맥주보리, 맥아 및 맥주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모색한 결과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 맥주보리 생산 △맥아가공 현황 △수제 맥주업체 현황 △국내 맥아 사용실태 △국산 맥아 사용 희망업체 등 조사 결과와 맥주 소비 트렌드 등이 실려 있다. 맥주보리가 매년 1만t 정도 재배되고 있지만 맥아용으로 3천톤만 사용되는 맥아의 유통 실태와

또한, 기존 농업인 뿐 아니라, 포도 재배에 처음 도전하는 농가를 위해 과수원 개원 비용을 비롯해 시기별, 작업 단계별, 나무 상태를 사진과 그림으로 수록했다. 책자는 농촌진흥청 2020년 신기술보급사업인 '유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 사업'의 참여 농가에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유립계 포도' 검색)에서도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시설 토마토 재배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자인 '현장에서 바로 보는 토마토 병해충 원색도감'과 쌀귀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식 조리법을 수록한 '귀리의 기능성과 귀리 활용'을 한국형 레시피 개발 책자도 발간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 경영개선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도·경진원, 내일부터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오는 26일(목)부터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http://consult.jbta.kr>)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개선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분야는 경영진단, 마케팅,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법무 등으로 기업에서 직접 필요한 컨설팅 주제를 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과 전문컨설턴트를 매칭해 4개월 동안 총 5회 진행한다. 경진원 관계자는 "신청기업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내 기업에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참여기업의 자부담 비용이 없으므로 코로나로 어려운 도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자기개발팀(063-711-20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조달청 '혁신장터' 개통 기념 온라인 이벤트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ppi.g2b.go.kr)에서 공공기관, 기업,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장터'는 범부처 혁신조달 플랫폼으로 지난 2월 24일 개통했으며, 주요기능은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제품 전용물 △부처별 공공 연구개발(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력 대안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지원이다. 개통 기념 온라인 이벤트는 혁신장터 내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